

발행일 2018. 4. 16. 발행처 대전세종연구원 발행인 박재욱
주 소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85 (선화동) Tel. 042-530-3500 Fax. 042-530-3528
제 작 ㈜봄인터랙티브미디어

{ 대규모점포의 효율적인 종합관리방안 }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기희

I. 연구배경 및 목적

- 충청권의 유통 및 상업거점으로서의 역할 및 구매흡인력 강화는 물론 대규모점포와 지역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업체와의 상생을 통한 지역 유통시장의 활성화 노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 필요하며, 유통업계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과 대전시의 유통업체 관리방안 검토 노력이 필요함
- 2018년~2022년까지 5개년간 대규모점포의 입점 적정수요 예측과 대규모점포의 효과적인 입점관리를 통한 대전지역 유통 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업체의 상생발전 방안을 제시함

II. 대전지역 유통업의 산업적 보완성과 동반성장 가능성

1. 대전지역 유통업 현황과 경쟁력 상황

- 대형유통업체 : 대형마트 14개, 백화점 4개, 전통시장 37개 등
- 도소매업 종사자 1인당 매출액 : 전국대비 0.861로 낮은 수준
- 판매액 지수 : 대형소매점 115.4, 대형마트 113.7로 낮은 수준
- 불변매출액* 추이 : 수도권 및 충청권에 비해 상당한 침체국면
* 불변매출액은 2010년 기준 가격으로 평가한 매출액임

[대전지역 자치구별·업태별 대규모점포 현황(2017년도)]

구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전체
대형마트	개	3	2	4	5	0	14
	매장면적(m)	43,771	24,850	53,482	79,719	0	201,822
백화점	개	0	2	2	0	0	4
	매장면적(m)	0	64,493	73,067	0	0	137,560
쇼핑센터	개	1	1	1	0	0	3
	매장면적(m)	4,464	6,076	14,002	0	0	24,542
그밖의 대규모점포	개	8	5	18	2	4	37
	매장면적(m)	22,243	27,876	159,518	14,864	22,692	247,193
전문점	개	2	3	0	1	1	7
	매장면적(m)	1,469,391	18,547	0	15,897	56,503	1,560,338
전체매장면적비율 (%)		70.9	6.5	13.8	5.1	3.6	100

주 : 그밖의 대규모점포는 전통시장을 포함함

출처 : 대전광역시 경제정책과

2. 유통업의 산업적 보완성과 동반성장 가능성

- 대전지역과 충남·충북지역 사이 산업연관관계 분석

- 대전에서 비서비스업 최종수요 증가가 발생하면 서비스업 산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충남·충북지역보다 수도권과 기타지역으로 전파
- 충남·충북에서 비서비스업 최종수요 증가가 발생하면 서비스업 산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인근 대전과 충남·충북보다 수도권 지역으로 전파
- 서비스업 중 도소매업 등은 그 생산파급효과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으로 전파
→ 도소매업 등은 충청권내수요에도 충분히 부응하기 어렵다는 증거

- 대전지역 유통총량수요 분석

- 충청권 기타 대형종합소매업(백화점 제외)의 균형매장면적적수요는 전국의 11.0%, 매장면적 공급은 8.6% 수준에 불과
- 충청권 백화점의 균형매장면적 수요는 전국의 18.4%, 매장면적 공급은 6.4% 수준에 불과
→ 충청권의 대형유통점과 백화점 모두 지역 구매흡인력에 비해 매장면적 공급이 크게 부족하다는 증거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산업연관 분석

- 기업 대형화의 산출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서비스산업 : 스포츠·오락, 문화, 운수·보관, 숙박, 도매·소매, 수리·개인, 과학 기술전문, 영상·오디오제작배급 등 순서

-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이용에 대한 의견 (5년전과 비교)

-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이용자 모두 5년 전에 비해 방문횟수 및 1회 평균 구매액 증가
- 소득수준이 낮은 대형마트 이용자는 전통시장 이용이 감소하고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통시장 이용자의 대형마트 방문횟수 감소
-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이용자 모두 중소유통점 방문횟수와 1회 평균 구매액 증가
- 대형마트 이용자는 전통시장 방문횟수와 1회 평균 구매액 모두 뚜렷하게 감소

3. 대규모점포의 지역기여를 통한 동반성장

- 대규모점포의 지역기여도 사업 추진 필요성

- 대규모점포가 지역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특히 기업의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규범적 차원에서 중소기업들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사업의 적극추진이 필요함

- 대규모점포 지역기여도 실적평가(2015년과 2016년의 실적분석)

- 지역상품 구매실적 목표액 7.0%, 용역의 지역업체 활용실적 목표치 60.0%에는 미치지 못하고, 인쇄물 발주는 가이드라인 70.0%를 초과 달성함
- 공익사업 참여 역시 가이드라인 0.35%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그 외 지역인력 고용, 지역업체 입점, 지역상품 상설매장은 목표치에 근접한 추진실적을 보임

- 대형마트

- 신규 입점을 제한하고 기존 업체 14개소의 매장을 확장하지 못하도록 함. 다만, 공익적 목적에 해당하고 부득이한 경우 신규 입점을 검토할 수도 있음
- 쇼핑센터 및 기타 대규모점포로의 단순 업체 변경등록도 제한함
- 기존 점포의 자치구간 조건부 이전입점을 허용함

- 백화점

- 공익적 목적에 한하여 조건부로 신규 입점 허용을 검토함(2012년부터 시행한 사항임)
- 등록된 업체의 영업면적은 유지토록 하여 기존 업체들의 무분별한 매장확장(증설)으로부터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함
- 기존 점포의 자치구간 조건부 이전입점을 허용함

- 쇼핑센터와 복합쇼핑몰 등 기타 대규모점포

- 대전 서비스산업과 세종·충남·충북 산업들과의 산업연계성과 보완성 강화와 충청·중부권의 유통수요를 흡인하기 위해 공익적 목적에 해당하는 조건부로 신규 입점을 검토할 수 있음
- 기본적으로는 지역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분별한 입점을 제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자본을 유치하는 관점에서 추진하되, 지역 중소기업 종사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상생방안들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 초대형슈퍼마켓(SSM)

- 입점관리를 통해 골목상권 중소기업들을 보호함
- SSM 입주기업 또는 자본참여 제한, 개점에 따른 영향평가제 실시, 유통업체간 균형발전적 상권 조정, 산업외적 규제방안등을 추진함
- 전통시장, 골목상권 중소기업들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영업시간 제한 유지 및 의무휴업제도를 지속 실시함

Ⅲ. 대전지역 대규모점포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1. 정책 추진 방향

- 세종·충남·충북경제권 산업들과의 분업체계의 진행과 산업보완성 강화
- 충청 및 중부권의 구매력을 흡인하기 위한 상권 확대와 쇼핑 중심지로의 육성
- 물류·유통서비스 확충과 대기업 중소기업간 동반성장체제 모색
- 대규모점포의 지역기여도 높이기

2. 대규모점포 관리방안

비전	중부권 쇼핑중심지 도약 및 대·중·소 유통기업 동반성장	
목표	대규모점포 효율적 관리 및 중소기업 상권보호	
전략	대규모점포 입점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마트: 유통시설 입점 제한 지속 추진 • 기타 대규모점포: 공익 목적의 조건부 입점 • 이전입점 허용을 통해 밀집 지역 포화도 개선
	중소유통 업체와의 동반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점포의 지역경제 기여도사업 확대 추진 • 대규모점포들의 공정거래행위 유도 • 도·소매 자영업자 원활한 퇴로 및 전직 지원 • 대규모점포의 자치구별 편중 완화 노력
<small>※ 공익적 목적 - 낙후지역 소비자 편익 증진, 대규모 택지개발지역(대규모 주거단지 또는 산업단지 조성 등), 도시개발사업(역세권, 터미널 개발 등), 상권침체지역 상권 활성화</small>		

[대규모점포 관리 비전·목표·전략]

3. 대형·중소유통업 상생발전 방안

- 대규모점포 지역기여도 제고사업 지속 추진

- 지역기여도사업을 모든 대규모점포로 확대 시행
- 기존 항목 가이드라인 조정과 신규 항목 추가 검토: 가이드라인 조정항목은 지역상품 구매와 공익사업 참여이고, 추가 검토 항목은 지역금융을 이용함
- 대규모점포 지역기여도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규모점포의 '현지법인화'를 추진토록 함

- 기타 방안

- 도매·소매업자의 원활한 퇴로 지원 및 전직 지원
- 대규모점포들의 공정거래행위 유도
- 대규모점포의 자치구별 편중 완화 노력

3월 대전 경제동향



종합평가

최근 대전지역 경제는 전월대비 소비와 건설경기가 활발한 모습을 보였으나, 생산과 대외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고용상황이 악화되어 전반적으로 회복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함. 전년동월대비로는 수출이 감소하고 생산이 위축되었으나, 소비와 건설경기가 활발하고, 고용상황이 개선되어 전월의 회복세를 이어가는 모습임

대전지역의 경기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2017년 1월, 3월, 11월을 제외하고 지속적인 후퇴국면이 진행되었으나, 2018년 1월 들어 소폭 상승함. 경기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2016년 10월 이후 2017년 3월 까지 후퇴국면을 보였고, 4월 이후 지속적인 상승국면이었으나 2017년 12월 이후 하락세를 보임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투자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저효과 등으로 생산·소비도 큰 폭으로 반등하며 회복의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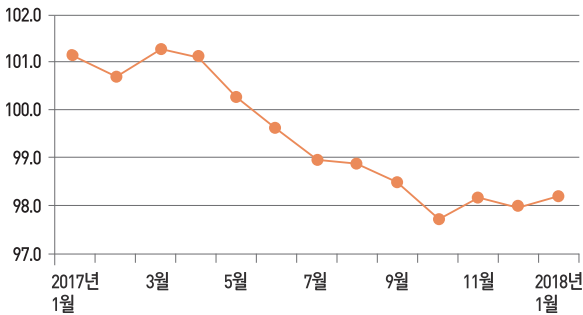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 개선, 수출 증가세 등에 힘입어 회복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청년실업률 상승 등 어려운 고용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통상 현안, 미국 금리인상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함

따라서 대전광역시는 대내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경기 회복세가 일자리·민생개선을 통해 체감될 수 있도록 '18년 경제정책방향 등 정책 노력을 가속화해야 할 것임

※ 경기선행종합지수는 지난 2월 통계청으로부터 변경승인(제206007호) 받아 작성한 통계로 이번호부터 발표, 통계청 KOSIS에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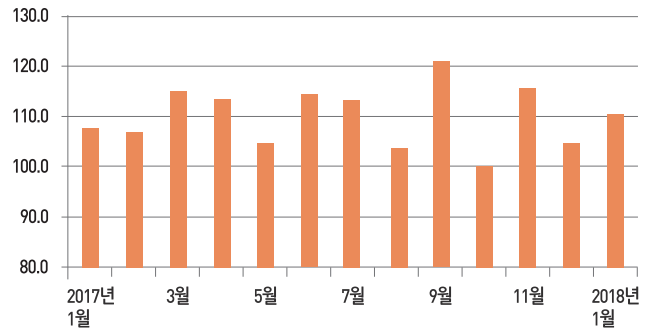
01

경기지수 경기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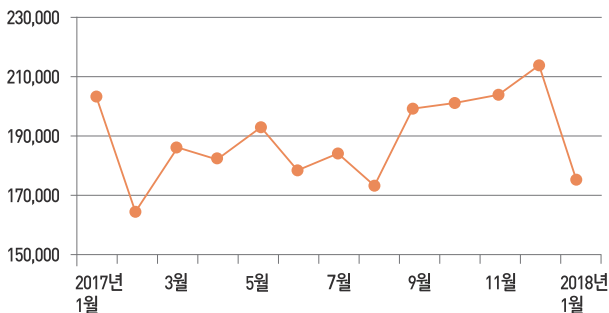
02

생산 제조업생산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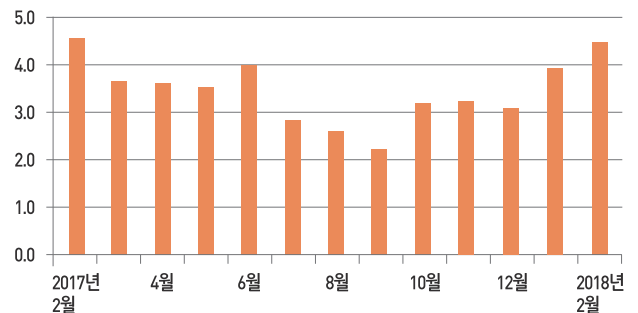
03

소비 대형소매점 판매액



04

고용 실업률



3월 세종 경제동향



종합평가

최근 세종지역 경제는 경기측면에서 소상공인 체감지수가 2018년 1월 크게 하락하였다가 2월에는 크게 증가함. 전월대비 세종지역 소상공인이 느끼는 경기에 대한 전망은 밝은 것으로 보임

생산측면에서는 세종시 광공업 생산지수와 재고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였고, 출하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낮게 나타남. 전국은 광공업 생산, 출하지수가 모두 감소하여 향후 국가 전체적인 생산측면의 변화를 지켜 봐야 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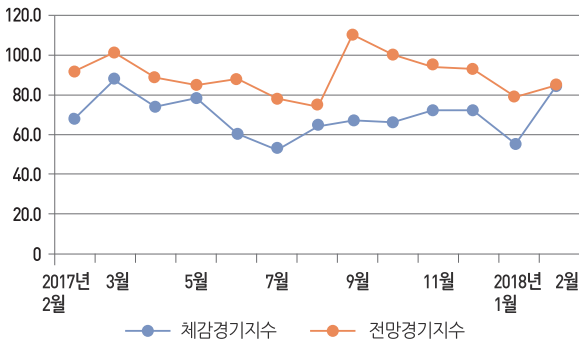
세종지역의 주택매매 가격지수를 살펴보면, 전년 동월대비 2.1% 증가, 전월대비 포함으로 나타남. 세종지역 부동산 가격은 작년 말에 소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일정하게 유지되는 흐름을 보임

세종지역의 2월 경제활동 인구는 139천명으로 전년 동월(125천명) 대비 11.2% 증가, 전월(137천명) 대비 1.5% 증가함. 취업자는 136천명으로 전년 동월(121천명) 대비 12.4% 증가하였고, 전월대비 1.5% 증가함

세종지역 2월 실업률은 2.4%이며, 전년 동월대비 0.8%p 감소하였고 전월대비 포함임. 2월 전국의 실업률은 4.6%이며, 세종지역 실업률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세종지역 실업률은 2017년 5월 크게 감소하였다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다 2017년 11월 이후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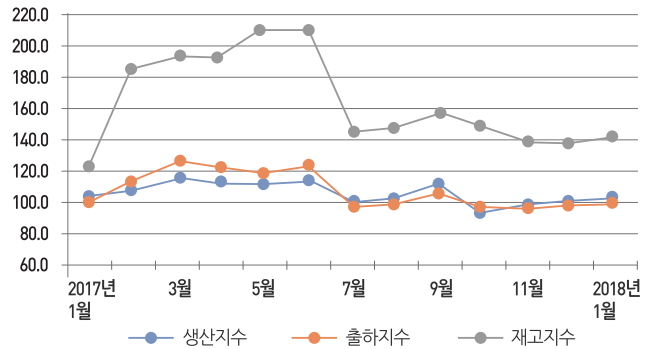
01

경기지수 소상공인 경기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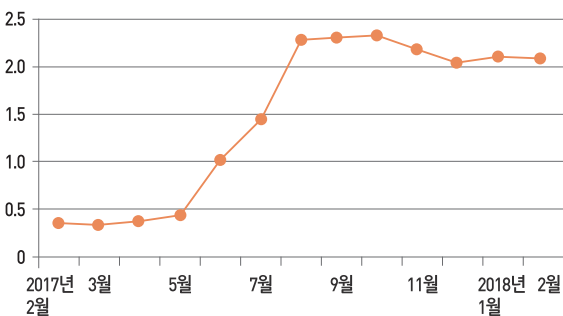
02

생산 광공업 생산지수 추이



03

부동산 주택매매 가격지수



04

고용 실업률

